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배수영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음악대학 재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에 대한
인식 및 교육실태

2023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이수미

음악대학 재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에 대한
인식 및 교육실태

배수영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이수미

인 준 서

이수미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3년 5월

심사위원장 임 인 경



심사위원 김 은 주



심사위원 배 수 영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대학 재학생들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와 자격증 활용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현재 교육 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가 음악대학 재학생들에게 더욱 활성화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으로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음악대학 재학생 79명(남성 17명, 여성 62명)이 선정되었으며, Google form을 활용하여 이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와 자격증 활용도에 대한 인식, 현행 교육 상황,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총 2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대학 재학생 중 대부분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에 대해 알고 있지만, 학년에 따라 그 인식도에 격차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음악대학 재학생 중 69.62%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를 알고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 비율은 학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1학년에서는 37.5%, 2학년에서는 47.1%, 3학년에서는 83.3%, 그리고 4학년에서는 80%였다. 특히, 1학년과 4학년에서는 약 2배의 차이를 보였다.

둘째, 음악대학 재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사 지정 교육기관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활용에 대한 인지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예술교육사 지정 교육기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라는 응답은 73.5%로 가장 많았으며,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 배치시설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라는 응답은 62.1%로 나타났다. 이는 음악대학 재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사 지정 교육기관 및 인력 배치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교육과정 운영 및 만족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예술적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참여 중심의 수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강해야 하는 과목은 <음악 교육론>, <음악 교수학습 방법>, <음악 교육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교육 개론>,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의 총 5과목이다. 이 중에서 <음악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만족도는 3.79로 가장 높았다. 이 과목의 교육 방법은 강의식 수업(17.8%), 조별 활동(16%), 그리고 프로그램 창작 수업(66.2%)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인 <문화예술교육 개론>의 만족도는 3.32로, 이 과목에서는 강의식 수업(21.4%), 조별 활동(34.5%), 그리고 팀별 문화예술 수업 기획(39.1%)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평균 만족도가 높은 두 과목은 학생들이 예술성을 발휘할 수 있는 창작과 기획 수업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결과는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참여형 교육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며, 학생들의 창의성과 예술성을 끌어내는 프로그램 창작 수업과 문화예술 기획 수업 등의 교육 방법 개발이 요구됨을 보여준다.

넷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의 경로를 확대하고, 학습자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자격증 취득 경로 다양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데 제한이 많다는 의견이 서술형 문항에서 다수 나타났다. 이는 ‘자격증 취득 경로를 더 다양하게 확장하길 원한다.’, ‘수강인원이 한정되어 있거나, 수업이 열리지 않는 학기가 있어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포함한다.

결론적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에 대한 홍보는 향상되었으나,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제도에 대한 인식 확대와 자격증 활용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음악대학 학생들이 자신의 예술성을 발휘할 수 있는 참여형 수

업 개발 및 확대와 강사의 강의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 더욱이, 음악대학 재학 기간 중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이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위한 수업 시수를 채우지 못한 학생들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사 지정 교육기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며,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시설의 안내 등과 같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의 안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자격증 취득 경로를 다양화하고, 음악대학 학생들이 전공과목과 함께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게 효율적이고 유연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체계적인 계획과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음악대학 학생들이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예술 강사가 양성될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3
3. 연구의 제한점	4
II. 이론적 배경	5
1. 문화예술교육	5
2.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8
3.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12
4. 선행연구	14
III. 연구 방법	18
1. 연구 대상	18
2. 연구 절차	19
3. 연구 도구	19
4. 분석 방법	21
IV. 연구 결과	22

V. 결론 및 제언 39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II-1>	문화예술교육사 1급 자격안내	9
<표 II-2>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안내	10
<표 II-3>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교육과정	11
<표 II-4>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교부 현황	11
<표 II-5>	문화예술교육사 지정 교육기관	12
<표 II-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13
<표 II-7>	문화예술 관련 기관 유형 (의무 배치기관)	13
<표 II-8>	문화예술 관련 기관 유형 (문화예술 관련 기관)	13
<표 II-9>	자격증 소지자 배치 여부	14
<표 II-10>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인원 비교 분석	14
<표 III-1>	연구 대상	18
<표 III-2>	연구 대상의 학년	18
<표 III-3>	연구 절차	19
<표 III-4>	설문 도구의 구성 및 문항	20
<표 IV-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에 대한 인지	22
<표 IV-2>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를 알게 된 계기	23
<표 IV-3>	‘학교를 통해’로 응답한 연구 대상의 학년별 비율	23
<표 IV-4>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필요성에 대한 인식	24
<표 IV-5>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계획 유무	25
<표 IV-6>	문화예술교육사 인력 배치시설 인지	26
<표 IV-7>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업 도움 관련 인식	26
<표 IV-8>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정규직 활용에 대한 인식	27
<표 IV-9>	문화예술교육사 지정 교육기관에 대한 인식	28
<표 IV-10>	문화예술교육제도 교육과정 2급 취득 교과목에 대한 인식	28
<표 IV-11>	문화예술교육제도 교육과정 수강 경험 및 수강계획	30
<표 IV-12>	문화예술교육제도 교육과정 교과목별 교육 방법	31
<표 IV-13>	문화예술교육제도 교육과정 만족도	31
<표 IV-14>	문화예술교육제도 교육과정 강사에 대한 만족도	32

<표 IV-15>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교육과정의 구성과목 비율 인식	33
<표 IV-16>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교육과정과 전공 연관성 인식	34
<표 IV-17>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과 전공 전문성 향상에 대한 인식	35
<표 IV-18>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36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의 하나인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이에 따라 현대인의 문화예술 향유에 원동력이 될 전문 인력의 양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장은언, 2017).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제정되고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문화 및 예술과 관련한 산업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문화예술교육사 도입의 활성화가 필요하게 되었고, 문화예술교육 인력 양성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2012년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을 통해 자격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에서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법제처, 2023)으로 정의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은 2013년 자격증 발급 첫해 3,469개의 자격증 배부 후 현재까지 배부된 자격증 누적 개수는 27,642개이며, 자격증 발급 첫해 이후 자격증 발급의 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3).

하지만,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의무 배치기관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율은 2020년 26.3%, 2021년 15.0%로 감소하고 있다. 의무 배치기관의 76.8%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그보다 낮은 50.2%로 나타나고 있다(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2022). 또한, 의무 배치기관 85%와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타기관 86.5%가 향후에도 교육사 자격증 소유자를 배치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김재득, 2022). 이러한 현상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정책이 그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며, 그 원인을 파악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사의 2022년 자격요건별 교부 현황을 살펴보면 전공자 3,297명, 비전공자 3명, 이수자 70명으로 총 3,370명의 합계를 보인다(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23).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예술 전공자들의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와 자격증의 활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은 문화예술교육의 질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2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활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예술 전공자들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목적 및 교육과정의 목표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과정에 관한 심층 인터뷰 주요 결과를 보면 예술 전공자는 대학을 졸업하면 교육사 자격증이 자연스럽게 따라서 나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준다고 하니 따두자’라는 인식이 강함을 알 수 있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2, p. 287). 또한, 예술 전공자들은 의무 배치기관에 관해 잘 모르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활용에 대한 안내 역시 부족함이 드러났는데,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학생들은 2급 자격증을 위해서 본인들의 전공 교과목을 조금 더 이수하는 과정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사를 전망 있는 미래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대학에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수업을 강의하는 교수자 에게서도 나타났는데, 이들 역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취득 목적이나 활용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 보고되었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이 설치되어있는 대학과 문화예술교육원을 비교했을 때, 교육의 질 측면에서 차이가 크며, 이러한 원인으로 문화예술교육원에는 자격증 취득 목

적, 동기 등이 뚜렷한 학생들이 본인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교육과정에 들어 오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대학에서도 문화예술교육원 수준의 자격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2, p. 289).

음악 분야 문화예술교육사 관련 연구(김경민, 2018; 안현지, 2023; 장지은, 2019) 동향을 살펴보면,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에 대한 문헌 연구는 많으나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를 활용하는 음악대학 재학생들과 관련한 연구는 다소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 경험자, 음악대학 재학생에 대한 연구(이지영, 2018; 조아해, 2018)에서도 설문 대상에 대한 심층적 분석 및 교육과정에 대한 실태 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분석이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비 문화예술교육사인 음악대학 재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및 자격증 활용에 대한 인식,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분석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대학 재학생들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와 자격증 활용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현재 교육 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가 음악대학 재학생들에게 더욱 활성화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대학 재학생들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와 자격증 활용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현재 교육 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대학 재학생들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와 활용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가?

둘째, 음악대학 재학생들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교육과정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가?

셋째, 음악대학 재학생들은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의 개선방안에 어떠한 의견을 가지는가?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음악대학 재학생 중 서울, 경기지역 음악대학으로 조사 대상을 한정하였기에 이를 전체 지역에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사의 10개 영역(연극, 영화, 미술,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음악, 국악, 공예, 사진, 디자인) 중 음악을 중심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이를 전체 영역에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문화예술교육

1) 문화예술교육의 정의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와 예술 그리고 교육과 밀접한 연관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으로부터 보호받는 특수한 위치에 있다. 문화예술교육의 이해를 위해서는 문화, 예술, 교육이 상호순환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즉, 문화는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연을 이상적인 목적과 준거 하에서 지배하고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며, 예술은 ‘인간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고, 교육은 ‘인간을 성숙하게 이끌고, 능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인간성을 발견하도록 돕는 모든 과정’이다(이참슬, 2013).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교육은 문화, 예술, 교육의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예술교육, 문화교육, 문화예술교육의 세 영역으로 구분되어 전개되어왔다. 일반적으로 예술교육은 ‘예술을 실제로 행하는 실기에 바탕을 둔 교육’으로, 문화교육은 ‘개인의 이해 및 문화적 차원의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예술교육과 문화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은 예술적 표현기법과 같은 기술만을 가르치는 것을 뛰어넘어 예술 그 자체를 통해 교육을 추구하는 모습이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은 모두가 주체자이자 생산자로서 문화를 이해하고 창조성과 창의력 및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예술적 감성을 만들고 나눌 수 있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이다롱, 2015).

2)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방향 및 목표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 비중을 높인 대표적인 정책이다. 2004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교육부와 함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 이를 기준으로 하여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확장하였다. 2007년에는 정책 추진 초기 3년의 경험과 시행착오, 정책 현장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전략(2007년~2011년)’을 수립하였으며 2009년부터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2014년에는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내실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7년에는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예술교육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17개 시·도 순회 간담회를 통해 지자체, 교육청, 지역문화재단, 민간지역 전문가 및 관련 관계자 총 162명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2018년에는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2018~2022년)’을 발표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문화예술교육 기반의 고도화, 수요자 중심의 교육 다각화 등의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2019년에는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이행 및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정책 사업이 구체적 실행전략의 결과를 내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문화예술교육을 공론화하는 추진단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정책 분야별 핵심 내용 도출 및 실행전략을 마련하여, 2020년부터 정책에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1).

3)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발전 과정

2000년도 초반부터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이라는 정책적 시도가 일어난 것을 시작으로 2004년 2월에는 문화예술교육과를 설치하였고, 11월에 교육인

적자원부와 함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대외적으로 문화 예술교육에 대한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계획을 제시하였다. 2005년 2월 한국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설립과 12월 ‘문화예술교육 진흥법’의 제정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지원법에 근거하여 문화예술교육은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사회 문화예술교육으로 세분화하였고, 학교 문화예술교육 중 ‘강사풀제’의 명칭을 ‘예술 강사파견사업’으로 개칭하였다. 2006년에는 ‘예술 강사파견사업’의 명칭을 ‘예술 강사지원사업’으로 개칭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범위가 이전보다 다양하게 확대되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노무현 대통령 정권에서 문화산업을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정책이 제도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으로의 정권 교체 이후, 문화 예술교육 정책은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등이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영역을 확대하여 진행하였다. 또 이 시기에 보건복지가족부와의 정책 협의로 예술 강사지원사업에서 인원 지원의 개편을 통하여 예술 인력의 일자리 확보를 추진하였다. 2010년부터는 ‘21세기를 위한 창의성’을 통해 얻은 실천적 차원의 논의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발전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초·중등학교의 예술 강사지원사업은 국악, 연극, 영화, 무용, 사진, 디자인 등 8개의 분야로 늘려 예술 강사지원사업이 확대 진행되었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업의 활성화에 참여하였다. 2012년에는 문화예술지원법 제정 당시 주요 영역인 교수 활동이 포함되지 않았던 문제를 개정하며 문화예술교육사를 규정하였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을 국정 목표의 목표로 삼고, 문화 다양성 증진 등의 문화예술 진흥기반을 확대하였다. 또, 2013년 2월 18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신청 및 교부가 시작되었다. 기존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강사풀제’는 2000년 국악 분야를 중심으로 시행되어 2002년에는 연극 분야, 2004년에는 영화 분야,

2005년 3월에는 무용, 만화 및 애니메이션 분야로 사업이 확대되었고, 2000년부터 시행되어 온 ‘강사풀제’의 용어가 2005년에는 ‘예술 강사파견사업’, 2006년에는 ‘예술 강사지원사업’으로 명칭을 개칭하였으며, 2015년 전까지는 예술 강사라는 용어로, 2015년 이후부터는 문화예술교육사라는 용어로 계획을 발표하였다(권영임, 차수정, 2015).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문화예술교육 정책 관련 최초의 법정 계획인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 (2018~2022)’을 발표함으로써 삶의 터전인 지역과 일상 속에서 개개인의 생애주기별 수요와 요구에 맞춘 문화예술교육을 질적으로 내실화하여 제공할 것을 공표하였다(탁지현, 2018).

2. 문화예술교육 자격제도

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요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 27조의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국가법령센터, 2022).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은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1급의 경우 자격 요건과 교육과정은 발표가 되었으나 현재까지 운영되지 않고 있다. 먼저 개정된 1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요건은 다음의 <표 II-1>과 같다.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진흥원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을 140시간 이상 이수한 이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표 II-1> 문화예술교육사 1급 자격안내

등급	자격 요건	
	학력경력 요건	교육과정 이수 요건
1급 문화 예술 교육 사	가.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2 제1호에 따른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사람
	나. 진흥원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140시간 이상 이수한 이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학교 문화예술교육(이하 “학교 문화예술교육”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교수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학교 문화예술교육 참여자”라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이하 “사회문화예술교육”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교수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사회문화예술교육 참여자”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출처: 국가법령센터, 「문화예술지원법 시행령」, [별표 1]

2급 교육과정은 다음 <표 II-2>와 같다. 이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호의 교육대학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예술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여 이수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다. 즉, 문화예술교육사 2급은 문화예술 관련 학사 및 문화예술 관련 전문학사 졸업생이 문화예술교육사 지정 교육기관에서 5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증이 발급

된다.

<표 II-2>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안내

등급	자격 요건	
	학력경력 요건	교육과정 이수 요건
2급 문화 예술 교육 사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 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예술 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여 졸업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예술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제2호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같은 호 나목의 예술전문성 교과목은 제외한다)을 이수한 사람
	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제2호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학교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진흥원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연수 교육을 14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라.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진흥원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연수 교육을 14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해당 목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출처: 국가법령센터, 「문화예술지원법 시행령」, [별표 1]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교육과정은 다음의 <표 II-3>과 같다. 5과목 중 3과목인 음악 교육론, 음악 교수학습 방법, 음악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대학 교육기관에서 교과목으로 인정될 수 있다(국가법령센터, 2022).

<표 II-3>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교육과정

교과 영역	교과목	최저 이수 시간 또는 학점
가. 직무역량	1) 문화예술교육 개론	30시간(2학점)
	2) 예술 관련 분야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수역량 교과목(3과목)	90시간(6학점)
나. 예술 전문성	3)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30시간(2학점)
	예술 관련 분야별 해당 분야의 전공과목(10과목 이상)	450시간(30학점)

* 출처: 국가법령센터, 「문화예술지원법 시행령」, [별표 2]

2)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교부 현황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첫 배부가 시작된 2013년도부터 2022년까지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현황은 <표 II-4>와 같다.

<표 II-4>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교부 현황

구분	전공자	비전공자	학교 예술 강사	사회 예술 강사	이수자	합계
2013년	380	-	2,576	85	428	3,469
2014년	1,291	94	460	32	240	2,117
2015년	1,588	68	338	27	175	2,196
2016년	2,203	54	648	28	90	3,023
2017년	2,368	49	-	-	150	2,567
2018년	2,196	18	-	-	102	2,316
2019년	2,625	7	-	-	146	2,778
2020년	2,986	4	-	-	100	3,090
2021년	3,683	10	-	-	118	3,811
2022년	3,297	3	-	-	70	3,370

* 출처: 문화예술교육진흥원(2022)

3) 문화예술교육사 지정 교육기관

2022년 2월 28일에 지정한 문화예술교육사 지정 교육기관은 다음의 <표 II-5>와 같다. 지정 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2).

<표 II-5> 문화예술교육사 지정 교육기관

지정번호	기관명	교육과정
제2022-1호	고려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미술
제2022-2호	대구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음악, 미술, 무용
제2022-3호	대진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음악, 미술, 디자인, 연극, 영화
제2022-4호	부산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국악, 음악, 미술, 공예, 디자인, 무용,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제2022-5호	이화여자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국악, 음악, 미술, 공예, 디자인, 무용
제2022-6호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미술, 디자인, 연극,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제2022-7호	중부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음악, 사진, 연극,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제2022-8호	호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미술, 공예, 디자인, 무용, 연극, 영화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2)

3.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1) 문화예술교육사 의무기관 배치

배출된 문화예술교육사는 다음의 <표 II-6>의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해 배치된다(문화체육관광부, 2022).

<표 II-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법 31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공립 교육시설은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1 「공연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공립 공연장
-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공립미술관
- 3 「도서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호가목이 문화의 집
- 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5호 다목의 전수회관

* 출처:문화체육관광부(2022)

「202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활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의무 배치기관과 문화예술 관련 기관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의무 배치기관은 「2020 전국 문화 기반 시설 총람」을 기준으로 한 국·공립 시설이며, 지역 문화 예술교육지원센터는 기타 법령상 의무 배치기관에 해당하므로 전체 기관 구분에 포함하여 분석한 것이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1).

<표 II-7> 문화예술 관련 기관 유형 (의무 배치기관)

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집	전수회관	지역문화 예술교육 지원센터	기타
N	558	269	45	142	55	82	14	4
(%)	(47.7)	(23.0)	(3.8)	(12.1)	(4.7)	(7.0)	(1.2)	(0.3)

* 출처: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21)

<표 II-8> 문화예술 관련 기관 유형 (문화예술 관련 기관)

기관	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미디어센터	평생교육기관	기타
N(%)	89(15.1)	123(20.8)	29(4.9)	331(56.1)	28(3.1)

* 출처: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21)

2)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현황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율은 의무 배치기관이 15.1%,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 11.5%로 나타났다.

<표 II-9> 자격증 소지자 배치 여부

	사례수(곳)	예(N/%)	아니오(N/%)
의무 배치기관	1,169	177(15.1)	992(84.9)
문화예술 관련 기관	590	68(11.5)	522(88.5)

*출처: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2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인원은 의무 배치기관이 총 340명으로 그 중 정규직은 88명(25.9%), 비정규직은 252명(74.1%)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 관련 기관은 총 173명으로 그 중 정규직은 23명(13.3%), 비정규직은 150명(86%)으로 나타났다.

<표 II-10>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인원 비교 분석

	사례수(곳)	정규직(N/%)	비정규직(N/%)	총계(N/%)
의무 배치기관	(177)	88(25.9)	252(74.1)	340(100.0)
문화예술 관련 기관	(68)	23(13.3)	150(86.7)	173(100.)

*출처: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21)

4. 선행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대학 재학생들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와 자격증 활용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현재 교육 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제도과 문화예술교육사에 관한 선행연구를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다.

장지은(2019)은 “음악 분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개선방안 연구”에서

문화예술교육사의 배경이 되는 문화예술에 대한 개념과 관련 정책들을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음악 분야 문화예술교육사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개선되지 못한 문제점들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국내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사 사례들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역의 문화예술기관의 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시행적 측면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 현행자격의 제고가 필요하다. 셋째, 교육적 측면에서는 대학 내에 설치되어있는 교직과목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통합에 대해 제안한다.

이지영(2018)은 “음악 분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교육과정 참여자의 교육만족도 및 개선방안”에서 음악 분야 문화예술사 교육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 여부 및 동기,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를 위해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교과목의 경험이 있는 서울 소재 대학교 음악 전공 재학생과 졸업생 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후, 조사 결과 응답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23명을 제외한 47명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수강생의 비율(68.1%)이 취득한 수강생의 비율(31.9%)보다 높았다. 둘째,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취득 동기는 ‘국가에서 인증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어서’이다. 셋째,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과목들에 대한 만족도와 현실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하는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에 경험자들은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교과목들이 더 연계성 있고, 체계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의 개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의 기회 확대,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현실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조아혜(2018)는 “서울지역 음악대학 재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사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서울지역 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 이를 위해 268명의 음악대학 재학생에게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응답에 문제가 있는 22명을 제외한 263명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 263명 중 62%가 문화예술교육사를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문화예술교육사를 모른다고 응답한 163명 가운데 30.1%는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해 알았어도 취득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가 53.1%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셋째,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수강했거나 현재 수강하고 있는 응답자의 59.6%가 취업을 목적으로 자격을 취득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문화예술교육사 학교 교육기관의 홍보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 경로 및 교육 과정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누리(2021)는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활용 및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활용 경험과 인식을 신규 문화예술교육사와 문화시설관계자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활용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신규문화예술교육사와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사업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문화시설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심층 면담의 기록을 질적 연구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신규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가 다양한 진로 선택의 제공과 취업에 유효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신규문화예술교육사는 경제적 불안감을 가져 두 가지 이상의 일을 병행하는 점과 다른 분야(음악, 미술, 영화 등의 분야)의 문화예술교육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없다는

점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을 언급하였다. 또 문화시설관계자는 신규문화예술교육사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부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문화시설에서 운영하는 DB와 같은 시스템 활용, 필수 채용 기관들의 법령과 긴밀한 연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함께 언급하였다.

한민서(2020)는 “문화예술교육사들의 예술 교육경험에 대한 의미 탐구”에서 문화예술교육사를 초기 취득하고 문화예술영역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하여 문화예술교육사들의 교육적 경험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의도적 표집에 의해 예술강사 활동 이외에 문화예술 영역에서도 활발하게 일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화 예술교육자들은 예술에 대해서 과거 학습자의 경험을 가지고 교수자로 활동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이어왔다. 또 문화 예술교육자들은 문화 예술교육자로 활동하게 되면서 예술을 사람들과 공유하며 예술적으로 다양한 상상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예술교육자들의 삶에서 들을 수 있는 교육적 통찰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탐색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강조하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음악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하며, 음악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몇 편의 연구에서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교육과정 및 실질적 운영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음악대학 재학생들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와 자격증 활용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현재 교육 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음악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에 대한 인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설문조사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은 다음의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연구 대상

성별	응답자 수(명)	비율(%)
남	17	21.5
여	62	78.5
총계	79	100.0

연구 대상의 학년은 다음의 <표 Ⅲ-2>와 같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 응답자 가운데 4학년이 30명(38.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학년이 24명(30.4%)으로 많았고, 1학년이 8명(10.1%)으로 가장 적었다.

<표 Ⅲ-2> 연구 대상의 학년

학년	응답자 수(명)	비율(%)
1학년	8	10.1
2학년	17	21.5
3학년	24	30.4
4학년	30	38.0
전체	79	100.0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준비, 설계, 수행, 분석 및 정리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연구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연구 절차

연구 절차	연구 일정	연구 내용
준비 및 문헌 연구	2022년 11월~2023년 1월	연구 주제 및 목적 선정 문헌 및 선행연구 고찰
설계	2023년 1월~3월	연구 대상 선정 설문지 계획
수행	2023년 3월	연구 대상 섭외 및 설문 실시
분석 및 정리	2023년 4월~5월	설문 결과 분석 연구 결과 해석 및 결론 도출 논문 작성 및 보완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이지영(2018)과 조아해(2018)의 연구 도구를 연구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일반적 사항 2문항,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활용도에 대한 인식 3문항,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에 대한 인식 4문항,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13문항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에 관해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는 서술형 1문항을 추가하여 총 2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 도구는 영역과 질문 내용에 따라 객관식 문항과 서술형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객관식 문항은 모두 단일 응답 문항이며, 이중 연구 대상자의 인식에 관한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 ‘매우 그렇다’까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해서는 연구 대상자들이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서술형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도구의 구성 및 문항은 다음의 <표 III-4>와 같다.

<표 III-4> 설문 도구의 구성 및 문항

항목	내용	문항번호
일반적 사항	성별	1
	학년	2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에 대한 인식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인지	3
	문화예술교육사 알게 된 계기	4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필요성	5
	문화예술교육사 취득계획	6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문화예술교육사 지정 교육기관인지	7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교과목인지	8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교과목 수강 경험 및 수강계획	9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교과목 교육방식 및 만족도	10~15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교과목 비율 적절성 인식	16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전공 연관성 인식	17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전공 전문성 향상 인식	18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필요성 인식	19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활용에 대한 인식	문화예술 교육사 인력배치 시설 인식	20
	문화예술교육사 취업 도움 인식	21
	문화예술교육사 정규직 도움 인식	22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에 대한 의견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에 대한 기타의견	23

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120명의 음악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Google form 형식의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회수된 79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모든 통계 처리는 SPSS 29.0을 활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일반적 사항,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에 대한 인식,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활용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별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에 대한 인식,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활용도에 대한 인식,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별 만족도에서 학년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에 대한 기타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공통되는 의견을 묶어 정리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에 대한 인식

본 연구의 연구 대상 응답자 79명 중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는 55명(69.62%)이고 모르는 응답자는 24명(30.38%)으로, 문화예술교육사에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응답자 수가 ‘모른다’라고 응답자 수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를 학년 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IV-1>과 같다. 1학년(37.5%), 2학년(47.1%)에 비해 3학년(83.3%), 4학년(80.0%)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라는 의견에서 높은 비율을 보인다.

<표 IV-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에 대한 인지

학년	모른다 N(%)	알고 있다 N(%)	전체 N(%)
1학년	5(62.5)	3(37.50)	8(100.0)
2학년	9(52.9)	8(47.1)	17(100.0)
3학년	4(16.7)	20(83.3)	24(100.0)
4학년	6(20.0)	24(80.0)	30(100.0)
전체	24(30.38)	55(69.62)	79(100.0)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55명 가운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를 알게 된 계기는 다음의 <표 IV-2>와 같다. ‘학교를 통해’가 47명(85.5%)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기타’로 응답한 3명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에 대해 스스로 찾아보았다.’, ‘음악 관련 진로를 생각하며 알아보던 중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라고 응답하였다.

<표 IV-2>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를 알게 된 계기

항목	응답자 수(명)	비율(%)
학교를 통해	47	85.5
지인을 통해	3	5.5
언론을 통해	2	3.6
기타	3	5.8
총계	55	100.0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를 알게 된 계기 중 8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학교를 통해’로 응답한 연구 대상 47명을 학년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IV-3>과 같다. 이를 살펴보면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에 대해 알게 되는 비율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학교 내에서 문화예술교육제도 및 교육과정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홍보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에 대한 안내가 저학년부터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3> ‘학교를 통해’로 응답한 연구 대상의 학년별 비율

학년	N(%)
1학년	0(0)
2학년	8(47.1)
3학년	18(75.0)
4학년	21(70.0)
전체	47(59.5)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다음의 <표 IV-4>와 같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를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55명 가운데 ‘전문예술 강사 양성을 위해 (43.6%)’가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이고, ‘전문성 향

상을 위해(32.7%)'가 두 번째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인다. 이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학생들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전문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IV-4>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필요성에 대한 인식

항목	응답자 수(명)	비율(%)
전문예술 강사 양성을 위해	24	43.6
전문성 향상을 위해	18	32.7
차별적 역량 및 자격 기준 마련을 위해	7	12.7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6	10.9
총계	55	100.0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계획에 대한 응답을 학년별로 살펴본 결과 다음의 <표 IV-5>와 같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계획이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79.7%이다. 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87.5%), 2학년(94.1%), 3학년(75%), 4학년(73.3%)이다. <표 IV-3>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69.62%)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계획이 있다는 응답(79.7%)의 결과를 비교하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79.7%)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69.62%)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모르고 있는 학생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5>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계획 유무

구분	취득계획 유무			전체	
	무응답 N(%)	있다 N(%)	없다 N(%)		
학년	1학년	0(0)	7(87.5)	1(12.5)	8(100.0)
	2학년	1(5.9)	16(94.1)	0(0.0)	17(100.0)
	3학년	1(4.2)	18(75.0)	5(20.8)	24(100.0)
	4학년	1(3.3)	22(73.3)	7(23.3)	30(100.0)
전체	3(3.8)	63(79.7)	13(16.5)	79(100.0)	

2.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활용도에 대한 인식

문화예술교육사 인력배치 시설에 대한 인식은 <표 IV-6>과 같다. 1학년부터 4학년의 전체 비율로 살펴보았을 때, 긍정적 의견인 ‘그렇다’의 응답 비율이 38%이고, 부정적 의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의 응답 비율은 62.1%이다. 특히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전체학년 모두에서 0%의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대학 재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사 인력배치 시설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V-6> 문화예술교육사 인력 배치시설인지

구분		전혀 알지 못한다 N(%)	잘 알지 못한다 N(%)	보통이다 N(%)	알고 있다 N(%)	매우 잘 알고 있다 N(%)	전체 N(%)
학년	1학년	2(25.0)	3(37.5)	2(25.0)	1(12.5)	0(0)	8(100.0)
	2학년	5(29.4)	8(47.1)	2(11.8)	2(11.8)	0(0)	17(100.0)
	3학년	4(16.7)	8(33.3)	9(37.5)	3(12.5)	0(0)	24(100.0)
	4학년	8(26.7)	11(36.7)	8(26.7)	3(10.0)	0(0)	30(100.0)
전체		19(24.1)	30(38.0)	21(26.6)	9(11.4)	0(0)	79(100.0)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과 취업에 대한 인식은 다음의 <표 IV-7>과 같다. 전체학년의 응답을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는 8.9%, ‘그렇다’는 53.2%, ‘보통이다’는 34.2% 이며, ‘그렇지않다’는 3.8%, ‘전혀 그렇지 않다’는 0%로 부정적인 의견보다 긍정적인 의견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대학 재학생들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가 추후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긍정적인 인식을 시사한다.

<표 IV-7>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업 도움 관련 인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N(%)	그렇지 않다 N(%)	보통이다 N(%)	그렇다 N(%)	매우 그렇다 N(%)	전체 N(%)
학년	1학년	0(0)	0(0)	2(25.0)	5(62.5)	1(12.5)	8(100.0)
	2학년	0(0)	0(0)	9(52.9)	6(35.3)	2(11.8)	17(100.0)
	3학년	0(0)	1(4.2)	9(37.5)	12(50.0)	2(8.3)	24(100.0)
	4학년	0(0)	2(6.7)	7(23.3)	19(63.3)	2(6.7)	30(100.0)
전체		0(0)	3(3.8)	27(34.2)	42(53.2)	7(8.9)	79(100.0)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정규직 활용에 대한 인식은 다음의 <표 IV-8>과 같다. 1학년부터 4학년의 전체 비율로 살펴보았을 때, ‘매우 그렇다’는 3.8%, ‘그렇다’는 44.9%, ‘보통이다’는 39.7%, ‘그렇지 않다’는 11.5%, ‘전혀 그렇지 않다’는 0%이다. 이 중 ‘그렇지 않다’(11.5%)의 학년별 비율을 살펴보면, 1학년 0%, 2학년 0%, 3학년 16.7%, 4학년 17.2%이다. 부정적 의견이 없는 1, 2학년에 비해 3, 4학년은 ‘그렇지 않다.’ 의견이 각각 16.7%, 17.2%의 비율을 보인다. 저학년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교과목의 수강 경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고학년의 응답 비율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활용 인식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가진다는 것은 문화예술 교육사 교육과정 중 자격증 활용에 대한 안내를 충분하게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표 IV-8>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정규직 활용에 대한 인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N(%)	그렇지 않다 N(%)	보통이다 N(%)	그렇다 N(%)	매우 그렇다 N(%)	전체 N(%)
학년	1학년	0(0)	0(0)	4(50.0)	4(50.0)	0(0)	8(100.0)
	2학년	0(0)	0(0)	7(41.2)	9(52.9)	1(5.9)	17(100.0)
	3학년	0(0)	4(16.7)	10(41.7)	9(37.5)	1(4.2)	24(100.0)
	4학년	0(0)	5(17.2)	10(34.5)	13(44.8)	1(3.4)	29(100.0)
전체		0(0)	9(11.5)	31(39.7)	35(44.9)	3(3.8)	78(100.0)

3.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문화예술교육사 지정 교육기관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학년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IV-9>와 같다. 전체학년에서 공통으로 ‘잘 모르고 있다’라는 의견(73.5%)이 매우 높은 응답 결과를 보였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4학년도 ‘전혀 그렇지 않다’가 30%, ‘그렇지 않다’가 50%로 부정적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학생도 문화예술교육사 지정 교육기관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IV-9> 문화예술교육사 지정 교육기관에 대한 인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N(%)	그렇지 않다 N(%)	보통이다 N(%)	그렇다 N(%)	매우 그렇다 N(%)	전체 N(%)	
학년	1학년	2(25.0)	4(50.0)	1(12.5)	0(0)	1(12.5)	8(100.0)
	2학년	1(5.9)	12(70.6)	3(17.6)	1(5.9)	0(0)	17(100.0)
	3학년	7(29.2)	8(33.3)	3(12.5)	4(16.7)	2(8.3)	24(100.0)
	4학년	9(30.0)	15(50.0)	2(6.7)	3(10.0)	1(3.3)	30(100.0)
전체	19(24.1)	39(49.4)	9(11.4)	8(10.1)	4(5.1)	79(100.0)	

문화예술교육사 2급 취득을 위한 5가지 교과목에 대해 알고 있는가에 관한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가 30명(38%), ‘그렇다’가 18명(22.8%)으로 문화예술교육사 2급 취득을 위한 5가지 교과목에 대해 60.8%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0> 문화예술교육사 2급 취득 교과목에 대한 인식

항목	응답자 수(명)	비율(%)
매우 그렇다.	30	38.0
그렇다.	18	22.8
보통이다.	10	12.7
그렇지 않다.	13	16.5
전혀 그렇지 않다.	8	10.1
총계	79	100.0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5가지의 교과목의 수강 경험 및 수강계획에 대한 응답은 다음의 <표 IV-11>과 같다. 전체학년의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해 5가지 교과목의 수강 경험 및 수강계획에 대한 긍정적 의견은 ‘매우 그렇다’가 31.6%, ‘그렇다’가 43%이며, 부정적 의견은 ‘그렇지 않다’가 7.6%, ‘전혀 그렇지 않다.’가 5.1%이다.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에 대한 수강 경험 및 수강계획에 대한 응답을 학년별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는 긍정적 의견은 1학년 87.5%, 2학년 76.4%, 3학년 79.2%, 4학년 66.7%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 의견은 1학년과 2학년 0%, 3학년 8.3%, 4학년 26.6%이다. 전체학년 응답 비율에서는 긍정적 의견(74.6%)이 부정적 의견 (12.7%)에 비해 높지만, 학년별로 살펴본 응답 비율을 통해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긍정적 의견의 비율이 줄고 부정적 의견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11>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수강 경험 및 수강계획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N(%)	그렇지 않다 N(%)	보통이다 N(%)	그렇다 N(%)	매우 그렇다 N(%)	전체 N(%)
학년	1학년	0(0)	0(0)	1(12.5)	5(62.5)	2(25.0)	8(100.0)
	2학년	0(0)	0(0)	4(23.5)	9(52.9)	4(23.5)	17(100.0)
	3학년	0(0)	2(8.3)	3(12.5)	9(37.5)	10(41.7)	24(100.0)
	4학년	4(13.3)	4(13.3)	2(6.7)	11(36.7)	9(30.0)	30(100.0)
전체		4(5.1)	6(7.6)	10(12.7)	34(43.0)	25(31.6)	79(100.0)

학생들의 구체적인 수강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수강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제도 교육 방법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12>와 같다. 무응답 및 구체적이지 못한 응답은 제외하였다. <음악 교육론>은 강의식 수업이 78.9%의 응답 비율을 보였다. <음악 교수학습 방법>은 강의식 수업 67.8%, 조별 발표 수업이 22.2%의 응답 비율을 보였다. 또 <음악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서는 강의식 수업 17.8%, 조별 활동 16%, 프로그램 창작 수업이 66.2%의 응답 비율을 보였다. <문화예술교육 개론>은 강의식 수업 21.4%, 조별 활동 34.5%, 팀별 문화예술 수업 기획이 39.1%의 응답 비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에서는 강의식 수업이 35.6%, 현장실습 수업이 64.4%의 응답 비율을 보였다.

<표 IV-12>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교과목별 교육 방법

음악 교과	교육 방법
음악 교육론	강의식 수업(78.9%)
음악 교수학습 방법	강의식 수업(67.8%), 조별 발표 수업(22.2%)
음악 교육프로그램 개발	강의식 수업(17.8%), 조별 활동(16%) 및 프로그램 창작 수업(66.2%)
문화예술교육 개론	강의식 수업(21.4), 조별 활동(34.5%), 팀별 문화예술 수업 기획(39.1%)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강의식 수업(35.6%), 현장실습 수업(64.4%)

문화예술교육제도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13>과 같다.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이는 과목은 <음악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교육 방법은 강의식 수업(17.8%), 조별 활동(16%), 프로그램 창작 수업(66.2%)이다. 다음으로 높은 평균을 보이는 과목은 <문화예술교육 개론>으로 교육 방법은 강의식 수업(21.4%), 조별 활동(34.5%), 팀별 문화예술 수업 기획(39.1%)이다. 평균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두 과목에서는 다른 과목과 다르게 교육 방법에서 학생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수업을 기획하는 등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2.94로 매우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에서 활용된 교육 방법은 강의식 수업(35.6%)과 현장실습 수업(64.4%)이다. 현장실습이 사용된 유일한 과목이지만, 그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현장실습에 대한 학습환경조성과 지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수강한 학생들이 배운 이론적 내용을 적용하기 힘든 환경에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또 가장 낮은 만족도(2.93)를 보이는 <음악 교육론>에서 활용된 교육 방법은 강의식 수업이 78.9%이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음악대학 재학생들이 단순한 강의식 수업보다 프로그램 창작 수업, 문화예술 수업 기획

등 참여형 수업을 더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13> 문화예술교육제도 교육과정 만족도

음악 교과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음악 교육론 만족도	40	1	4	2.93	.89
음악 교수학습 방법 만족도	25	1	4	3.04	.84
음악 교육프로그램 개발 만족도	19	3	5	3.79	.63
문화예술교육 개론 만족도	28	2	5	3.32	.77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만족도	16	1	5	2.94	1.24
전체	128	1.75	4.5	3.27	0.78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강사에 대한 만족도는 다음의 <표 IV-14>와 같다.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강사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2.84, 표준편차 1.068로 교육과정 만족도 중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음악 교육론>의 평균 만족도(2.93) 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강사에 대한 만족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31	1	5	2.84	1.068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교육과정은 문화예술교육 개론(2학점), 음악 교육론(2학점), 음악 교육론(2학점), 음악 교수학습 방법(2학점), 음악 교육프로그램 개발(2학점),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2학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론 과목과 실습과목의 비율이 4:1이다. 문화예술교육사 2급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의 구성과목 비율에 관한 의견은 다음의 <표 IV-15>와 같다. 1학년

부터 4학년까지 전체학년의 응답 비율은 ‘그렇다’(38.0%)와 ‘보통이다’(36.7%)의 의견이 높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3%) 의견이 가장 낮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그렇다’(38%) 의견을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 37.5%, 2학년 29.4%, 3학년 45.8%, 4학년 36.7%이다.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1.3%) 의견을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 0%, 2학년 0%, 3학년 4.2%, 4학년 0%이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교과목 비율에 대해 부정적 의견(15.2%)보다, 긍정적 의견(48.1%)이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이며 학년별 편차도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15>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교육과정의 구성과목 비율 인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N(%)	그렇지 않다 N(%)	보통이다 N(%)	그렇다 N(%)	매우 그렇다 N(%)	전체 N(%)
학년	1학년	0 (0)	1(12.5)	4(50.0)	3(37.5)	0(0)	8(100.0)
	2학년	0(0)	3(17.6)	8(47.1)	5(29.4)	1(5.9)	17(100.0)
	3학년	1(4.2)	2(8.3)	5(20.8)	11(45.8)	5(20.8)	24(100.0)
	4학년	0(0)	5(16.7)	12(40.0)	11(36.7)	2(6.7)	30(100.0)
전체		1(1.3)	11(13.9)	29(36.7)	30(38.0)	8(10.1)	79(100.0)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과 전공과목과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은 다음의 <표 IV-16>과 같다. 1학년부터 4학년의 전체 비율로 살펴보았을 때, 긍정적 의견인 ‘그렇다’ 응답 비율이 55.1%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년별로 살펴본 긍정적 의견의 ‘그렇다.’ 비율은 1학년 62.5%, 2학년 70.9%, 3학년 56.5%, 4학년 43.3%이다. 또한, 부정적 의견인 ‘그렇지 않다’의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전체응답 비율은 11.5%이며,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 12.5%, 2학년 11.8%, 3학년 8.7%, 4학년 13.3%이다. 이를 통해 학년별 비교 중 4학년

에서 긍정적 의견인 ‘그렇다’ 비율이 가장 낮으며, 부정적 의견인 ‘그렇지 않다’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16>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교육과정과 전공 연관성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N(%)	그렇지 않다 N(%)	보통이다 N(%)	그렇다 N(%)	매우 그렇다 N(%)	전체 N(%)
학년	1학년	0 (0)	1(12.5)	1(12.5)	5(62.5)	1(12.5)	8(100.0)
	2학년	0(0)	2(11.8)	3(17.6)	12(70.9)	0(0)	17(100.0)
	3학년	0(0)	2(8.7)	4(17.4)	13(56.5)	4(17.4)	23(100.0)
	4학년	0(0)	4(13.3)	12(40.0)	13(43.3)	1(3.3)	30(100.0)
전체		0(0)	9(11.5)	20(25.6)	43(55.1)	6(7.7)	79(100.0)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과 자신의 전공 전문성 향상에 대한 인식은 다음의 <표 IV-17>과 같다. 1학년부터 4학년의 전체 비율로 살펴보았을 때, ‘그렇다’ 응답 비율이 49.4%로 가장 높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 비율이 5.1%로 가장 낮다.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인 ‘그렇다’라고 응답한 결과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 50%, 2학년 70.6%, 3학년 33.3%, 4학년 50%이며, 가장 낮은 응답 비율을 보인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결과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 0%, 2학년 0%, 3학년 8.3%, 4학년 3.3%이다. 부정적 의견의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 비율이 저학년과 달리, 고학년에서는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수강 경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고학년에서 부정적 의견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수강 이후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교육과정이 자신의 전공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발생 하였을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표 IV-17>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과 전공 전문성 향상에 대한 인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N(%)	그렇지 않다 N(%)	보통이다 N(%)	그렇다 N(%)	매우 그렇다 N(%)	전체 N(%)
학년	1학년	0(0)	1(12.5)	2(25.0)	4(50.0)	1(12.5)	8(100.0)
	2학년	0(0)	1(5.9)	1(5.9)	12(70.6)	3(17.6)	17(100.0)
	3학년	2(8.3)	4(16.7)	7(29.2)	8(33.3)	3(12.5)	24(100.0)
	4학년	1(3.3)	3(10.0)	9(30.0)	15(50.0)	2(6.7)	30(100.0)
전체		4(5.1)	8(10.1)	19(24.1)	39(49.4)	9(11.4)	79(100.0)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다음의 <표 IV-18>과 같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체학년의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긍정적 의견인 ‘그렇다’ 비율이 48.1%로 가장 높으며, 부정적 의견인 ‘전혀 그렇지 않다’ 비율이 0%로 가장 낮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11.5%)의 응답을 학년별로 살펴보면 1, 2학년은 0%인 것과 달리 3학년 12.5%, 4학년 10%의 비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저학년과 비교하였을 때,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수강 경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고학년 중 수강 이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가지는 학생이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표 IV-18>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N(%)	그렇지 않다 N(%)	보통이다 N(%)	그렇다 N(%)	매우 그렇다 N(%)	전체 N(%)
학년	1학년	0 (0)	0(0)	1(12.5)	4(50.0)	3(37.5)	8(100.0)
	2학년	0(0)	0(0)	6(35.3)	8(47.1)	3(17.6)	17(100.0)
	3학년	0(0)	3(12.5)	7(29.2)	10(41.7)	4(16.7)	24(100.0)
	4학년	0(0)	3(10.0)	7(23.3)	16(53.3)	4(13.3)	30(100.0)
전체		0(0)	9(11.5)	21(26.6)	38(48.1)	14(17.7)	79(100.0)

4.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에 대한 음악대학 학생들의 개선방안 및 요구 사항

본 연구에서는 설문문의 마지막 문항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이나, 바라는 점을 서술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에 대한 음악대학 전공생들이 생각하는 개선 및 요구 사항으로는 강사의 강의력 및 강의방식 개선 요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에 대한 안내 및 홍보 확대, 문화예술교육사 취득 경로 활성화 및 수업 시수 확대 요구로 정리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사 교과목 강사의 강의력 개선 요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개선 및 요구 사항에 관한 자유 기술 문항에 응답한 40명의 응답자 중 13명이 강사의 강의력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였다.

자격증을 준다고 하니 듣긴 하지만 별로 도움 되는 강의는 아니다. 교수님의 강의방식이 유익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응답자 A)

또 다른 의견으로 교수와 학생 간의 의사소통 부족에 대한 불만, 강사 교육 방식의 개선 요구, 강사의 강의력에 따른 강사 교체 요구, 강의 평가 미반영에 대한 해결 요구, 한정적인 수요의 강의 인원에 대한 불만 등이 있었다.

수강인원의 확대가 필요하고 강사에 대한 불만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지도 강사에 대한 선택의 폭이 다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응답자 B)

강사의 강의력과 수업방식에 대해 불만이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 차원에서 명확한 강사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응답자 C)

2)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에 대한 안내 및 홍보 부족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개선 및 요구 사항에 관한 자유 기술 문항에 응답한 40명의 응답자 중 16명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에 대한 설명 및 홍보 부족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였다.

학교에서 관련 제도를 예술 관련 전공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자세하게 정리하여 정보를 공유해주면 좋겠다. (응답자 D)

이 자격증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자격증이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응답자 E)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에 대해 더 자세하게 분명하게 알게 한 이후에 자격증 취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제도에 대한 이해 없이 그저 자격증 취득을 위해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응답자 F)

또 다른 의견으로 자격증 활용 기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더 많은 예술 전공자들이 자격제도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의 홍보가 필요함, 제도에 대한 안내와 함께 취득방식에 대한 안내도 필요함 등이 있었다.

3) 문화예술교육사 취득 경로 확대 및 수업 시수 확대 요구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의 개선 및 요구 사항에 관한 자유 기술 문항에 응답한 40명의 응답자 중 14명이 취득 경로 활성화 및 수업 시수 확대 요구에 대한 의견을 언급하였다.

관련된 전공이 아니더라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다양한 방식으로 해당 제도를 접할 수 있는 경로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응답자 G)

학교 차원에서 예체능 전공 학생에게 필수과목으로 추천하여 제도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학교 이외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경로에 대해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응답자 H)

문화예술교육사 수업을 듣고 싶었는데, 수업이 열리지 않는 학기가 있어 수업을 듣지 못한 학기가 있다. 또 수강 신청 인원이 한정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더 많은 인원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수업이 더 확대되면 좋겠다. (응답자 I)

또 다른 의견으로는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는 비용이 발생하여 수강하기 부담스러움, 전공과 연관 지어 들을 수 있는 강의가 있으면 좋겠음 등의 의견이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대학 재학생들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와 자격증 활용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현재의 교육 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지역 음악대학 재학생 7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대학 재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비해 높아졌으나 여전히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에 대한 홍보는 부족해 보인다. 조아혜(2018)의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음악대학 재학생의 비율은 38%로 모른다고 응답한 62%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음악대학 재학생의 비율은 69.62%로 모른다고 응답한 30.38%에 비해 현저히 높다. 이를 통해 조아혜(2018)의 연구 이후 5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음악대학 재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에 대한 인식은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년별 인식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학년 37.5%, 2학년 47.1%, 3학년 83.3%, 4학년 80%로 1학년과 4학년의 응답 비율은 약 2배의 차이를 보인다. 학부 교육과정 중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위한 5가지 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저학년에서부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학부 교육과정을 전체를 계획하고 원만히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서술형 문항에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수강하지 못한 학생 중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교육과정이 있는지 알지 못해 다른 전공과목을 듣다가 못 들었다.’라고 응답한 답변에서도 나타난다. 따라서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음악대학 재학생들은 문화예술교육사 지정 교육기관과 자격증의 활용도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 문화예술교육사 지정 교육기관에 대해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잘 모르고 있다’라는 의견(73.5%)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며, 특히 학교에서 교육과정 경험의 기회를 놓친 학생들이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사 지정 교육기관에 대한 안내 또한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자격증 취득 이후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배치 시설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라는 응답은 62.1%로 나타났으며, 전체학년 모두에서 ‘매우 잘 알고 있다’라는 응답은 0%의 비율을 보였다. 이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 이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시설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는 ‘수업을 듣기는 하지만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같은 학생들의 서술형 문항 답변에서도 드러났다. 자격증 활용에 대한 안내가 부족할 경우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 동기를 저하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학습 태도 또한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음악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지정 교육기관에 대한 안내, 문화예술교육사 인력 배치시설 및 자격증 활용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 이러한 안내가 이루어졌을 때 음악대학 재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참여도 증가 및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률 증가의 긍정적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생들은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에서 자신들의 예술성을 발휘할 수 있는 참여형 수업을 가장 선호하고 단순 강의식 수업을 가장 비선호한다. <음악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수업 만족도는 3.79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5과목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음악 교육프로그램 개발>에서 사용된 교육 방법은 강의식 수업(17.8%), 조별 활동(16%) 및 프로그램 창작 수업(66.2%)이다. 다음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인 <문화예술교육 개론>의 수업 만족도는 3.32이다. <문화예술교육 개론> 수업에서 사용된 교육 방법은 강의식 수업(21.4%), 조별 활동(34.5%), 팀별 문화예술 수업 기획 수업(39.1%)이다. 평균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두 과목에는 다른 교과목과는 다르게 학생들의 예술성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창작 수업, 팀별 문화예술 기획 수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반해, 강의식 수업방식 비율이 높은 <음악 교육론>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보다도 낮은 2.93으로 나타났으며, 서술형 문항에 답한 학생들의 개선방안 의견에서도 40명 중 13명의 학생이 강의식 수업에 대한 불만 및 강사의 강의력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수업 방법의 측면에서 학생들의 만족도를 고려하여 강의식 수업보다는 학생 참여형 교육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음악을 전공하는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인 만큼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프로그램 창작 수업, 문화예술 기획 수업과 같은 학생들의 예술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

넷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의 경로를 확대하고, 학습자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이 필요하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서술형 문항에 대한 응답 중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가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다.’, ‘학교 이외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경로에 대해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에서 음악대학 재학생들이 더 다양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 경로

의 마련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수강인원이 한정적이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수업을 들으려고 했는데, 수업이 열리지 않는 학기여서 수강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의 답변에서 자신의 전공과목과 함께 자격증을 위한 5과목을 수강해야 하는 음악대학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악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취득 경로 다양화와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음악대학 학생들이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면,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예술 강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대학 재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에 대한 인식 증가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와 비교하였을 때, 음악대학 재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인지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증가 이유와 관련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에 대한 음악대학 재학생들의 인식을 증가시킨 요인에 대한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었을 때 음악대학 재학생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에 대한 인식 증가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더 다양한 지역의 음악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서울·경기지역의 음악대학 재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가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인 만큼 더 많은 지역의 음악대학 재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김경민 (2018). **문화예술교육사 활성화를 위한 해외사례 연구**.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 김누리 (2021).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활용 및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삼육대학교.
- 김재득 (2022. 10. 10.).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 자격증 소지자 배치율 15.1%에 그쳐**.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61296>>에서 2023년 1월 22일 검색.
- 권영입, 차수정 (2015).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가치와 발전방안**. **한국콘텐츠학회지**, 15(7), 602-604.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2022). 법률 제18768호. <www.law.go.kr/LSW/>.
-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 문화예술정책 백서**.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이규석 (2021). **202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활용 실태 보고서**. **문화예술관련 기관 종합분석** (223-229쪽).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이다롱, 김진아 (2015). **지역문화 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례 연구: 광주 문화 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원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10(1), 33-34.
- 이지영 (2018). **음악 분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교육과정 참여자의 교육만족도 및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 이참슬 (2013). **한국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교육목표의 교육학적 분석 및 의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 안현지 (2023). **4차 산업혁명시대 문화예술교육사 역량모델 및 역량기반 교**

- 육과정개발: 음악분야를 중점으로.**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장은언 (2017).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음악과 교수역량 교과목연구. **음악교육공학**, 1(3), 12-16.
- 장지은 (2019). **음악 분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최웅아 (2016). **무용 분야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탁지현 (2018).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질적 개선방안 모색: 무용 분야의 교육과정 및 취업 연계를 중심으로. **한국무용학회지**, 29(3), 220.
- 한민서 (2020). **문화예술교육사들의 예술교육경험에 대한 의미 탐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ABSTRACT

Music college students' awareness and education status about the culture and art education history system

Lee, sumi

Music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vestigating students' perceptions of the qualification system for culture and arts educator and the utilization of certificate of culture and arts educator, education status, and opinions on improvement plans, and suggesting ways to further activate the cultural arts educator system for music college students.

A Google form survey was conducted with 79 students (male: 17, female: 62) enrolled in music colleges in the Seoul and Gyeonggi regions. The questionnaire consists of a total of 23 questions, which are the perception of the qualification system for cultural arts educators and the degree of utilization of qualifications, the current status of education for culture and arts educators, and opinions on ways to improve the

qualification system for culture and arts educators.

First, although the rate of awareness of the qualification system for cultural arts educators among music college students has increased, there is a gap in awareness by grade. In Jo Ah-hae's study in 2018, the percentage of music college students who knew about the qualification system for cultural arts educators was 38%, and 62% responded that they did not know. However, in this study, 69.62% of music college students responded that they knew about the qualification system for cultural arts educators, and 30.38% answered that they did not know. However, there was a perception gap by grade level. The percentage of first-year students who knew about the system was 37.5%, and the percentage of fourth-year students was 80%, showing a difference of about two times.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opinions on the curriculum and satisfaction, the level of satisfaction was high in the participatory class method that allows students to demonstrate their artistry. The class satisfaction rate of <Music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was 3.79, which showed the highest satisfaction among the 5 subjects in the curriculum of the qualification system for cultural arts educators. The educational methods used in <Music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are lecture-type classes (17.8%), group activities (16%), and program creation classes (66.2%). The class satisfaction rate of <Introduction to Arts and Culture Education>, which showed the next highest level of satisfaction, was 3.32. The educational methods used were lecture-type classes (21.4%), group activities (34.5%), and culture and art class planning classes by team (39.1%). As this is a class for students majoring in music,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articipatory education method that allows students to demonstrate their artistry, such as program creation classes and cultural art planning classes that show high satisfaction.

Third, the students of the College of Music lack awareness about the use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cultural arts education certificates. In response to the question of whether they knew about the designated educational institution of the Cultural Arts Education Institute, the majority of respondents said they did not know, at 73.5%. In addition, 62.1% of respondents said they did not know well about manpower placement facilities that can utilize licenses after obtaining licenses.

Fourth, in order to revitalize the qualification system for cultural arts educator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ath for acquiring qualifications, operate a curriculum that can meet the needs of learners, and improve lecturers' teaching skills.

부록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를 통하여 서울과 경기지역 음악대학 재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사 인식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설문 조사는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가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응답해 주시는 설문내용은 석사논문을 위한 자료로만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수미

1. 성별

(1) 남자 (2) 여자

2. 학년

(1) 1 (2) 2 (3) 3(4) 4

3.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1) 알고 있다 (2) 모른다

4.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에 대해 알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1) 학교를 통해
- (2) 언론을 통해
- (3) 지인을 통해
- (4)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통해
- (5) 기타()

5.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1) 차별적 역량 및 자격 기준 마련을 위해
- (2)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 (3) 전문성 향상을 위해
- (4) 전문 예술강사 양성을 위해
- (5) 기타()

6.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계획이 있습니까?

- (1) 있다 (2) 없다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및 취득에 대한 인식>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은 이론과목 4과목 (문화예술개론, 음악 교육론, 음악 교수학습방법, 음악 교육프로그램 개발) 과 실습과목 1과목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7. 문화예술교육사 지정 교육기관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5	4	3	2	1
8.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5가지 교과목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까?	5	4	3	2	1
9.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해 5가지 교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거나 수강할 계획이 있습니까?	5	4	3	2	1
10.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의 구성과목이 이론과목과 실습과목의 적절한 비율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	4	3	2	1
11.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이 전공 과목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	4	3	2	1
12.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이 자신의 전공에 대한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	4	3	2	1
13.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이 음악대학 재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	4	3	2	1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수강 경험이 있는 학생만 응답

질문내용	만족도					교육방식
	매우높다.	높다.	보통이다.	낮다.	매우 낮다.	
14. <음악교육론> 수업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교육방식은 무엇이고 교육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5	4	3	2	1	
15. <음악 교수학습방법> 수업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교육방식은 무엇이고 교육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5	4	3	2	1	
16. <음악 교육 프로그램 개발>수업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교육방식은 무엇이고 교육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5	4	3	2	1	
17. <문화예술교육 개론> 수업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교육방식은 무엇이고 교육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5	4	3	2	1	
18.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수업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교육방식은 무엇이고 교육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5	4	3	2	1	
19.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지도하는 강사에 관한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5	4	3	2	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활용도에 대한 인식>

질문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20. 문화예술교육사 인력 배치 시설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5	4	3	2	1
2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4	3	2	1
22.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추후 정규직으로의 활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	4	3	2	1

23.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에 대해 바라는 점이나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점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